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길었던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면서 비취켠에서 돌아올 때면 천산산맥 위에 걸려있는 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둥그렇게 차오르고 있는 달을 보니 곧 한국의 추석명절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먼 친척들이 찾아와 함께 명절 상을 차리던 옛 기억이 떠오르네요. 여기에서도 이 계절이 되면 방목했던 가축들이 돌아오면서 미뤄두었던 가족 행사들을 치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길러온 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아이들의 새학기를 준비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아이들 월세를 마련하기도 하고 결혼 청첩장이 들려지기도 하지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난방용 석탄을 미리미리 구입해 창고에 가득히 쌓아 두기도 합니다. 축사 옆에 높이 쌓아올린 건조더미는 여름내 수고한 땀방울들의 보상이기도 하지요.

프로그레스 마을의 다블랏 가정에도 올해는 여름 부엌 가득히 병절임 채소들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듯이 저희 동네 사람들은 여름에 수확한 채소들을 유리병에 넣고 소금과 양념을 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월동 식량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블랏이 카작으로 일하러 떠나있던 몇 년 동안 아이들과 근근히 가축만 돌볼뿐 텃밭은 엄두도 못냈는데 올해는 모처럼 몇 년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면서 아내 미니라의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습니다. 다블랏네 비닐하우스에서는 아직도 토마토가 발그스름 익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에는 비닐하우스 1 동과 육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것은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토마토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서 그만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하루 수영장 가고 식사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아원의 고려인 N 자매는 지난 8 월 만 18 세가 되어 이제 그동안 지내던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비취켠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장학관에 머물며 저희 교단내 회사에 주일모임에 나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 월에는 A 사역자의 장애인 캠프에 안경을 갖고 참여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애인 캠프는 A 사역자가 오랜시간 관계를 해온 N 지역의 장애인 가정들을 포기하고 아직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추이 지역 가정들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센터이기에 곳곳에 십자가와 여러 상징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여한 가정들이 어색해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스쿨 호수에 발을 담가 보았다는 감격에 찬 얼굴로 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캠프에서 돌아와 몇몇 가정에는 가정방문도 할 수 있었고 관계의 벽이 뛰어넘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8 월 말부터 약 열흘간 뉴욕에서 오신 최선생님과 함께 N 지역과 K 지역으로 안경사역을 감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N 지역에서는 첫날 지역 사역자가 초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째 날에는 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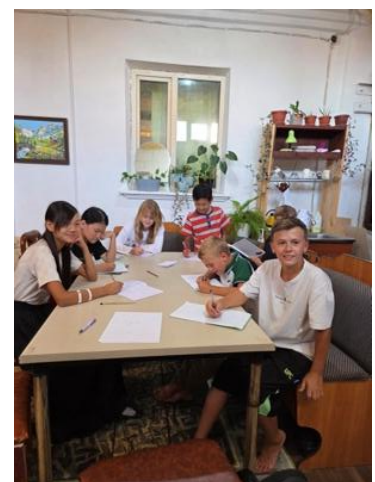
내에서 가장 배타적이라는 A.B.마을 사회복지 기관에서 그리고 셋째 날에는 A.T. 마을 사역자가 초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불필요한 지역 기관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준비하다 보니 매일 대상지역을 변경하며 사흘간 일정을 위해 총 20 시간을 이동해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정도의 일정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욕심을 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K 지역에서 주로 농아인들을 섬기는 M 사역자의 요청을 따라 왕복 24 시간의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키르기즈 수어를 모르고 그들은 제 말을 듣고 대답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표정과 행동으로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기위해 동참한 A 와 Z 사역자, 그리고 소식을 듣고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러 천산산맥을 넘어와준 T 자매, 통역을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준 싱글맘 M, 수련회 일정을 조정하며 동역해 준 사역자 N 과 그 아내 J.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에 저희 일행이 충분히 쉬어갈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준 K 사역자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과 낮이 바뀐 시차를 이겨내며 함께 하기 위해 뉴욕에서 먼 길을 오신 최선생님.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좋은 소식은 6 년전 A.T. 마을에서 안경사역을 했을 때 만난 A 자매가 기어이 의대에 진학하고야 말았습니다. ㅎㅎㅎ 계다가 안과의사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네요. 이동진료 팀에 자원봉사자로 들어왔는데 이름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경조제를 배워온 D 형제와 본격적으로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경 사역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일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다른 일 찾지 말고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4 년 후엔 이 친구들이 하는 안경사역과 안경원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내와 하늘이는 지난 7 월 한국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진료과 선생님들이 하늘이 상태를 체크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검사주기를 한달 더 길게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6 개월 간격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하늘이를 향한 아버지의 뜻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여름 20 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려인 O 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96 세인 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 누워 계시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O 는 주일모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신자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도 함께 방문해서 위로를 전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는데 구원의 초청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고, 장례식도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그 후 O 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빠, 그리고 딸 L 에게 함께 주일 모임에 가자고 권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임에 L 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L 은 원래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고, 제가 주일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선뜻 따라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즐겁게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가정에 그 씨앗을 심으셨고, 지금 그 손녀를 통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 작은 소녀를 통해 엄마와 삼촌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단기제목

1. 지난 3 월 중순 신청한 영주권 심사 과정을 위해.
2. 안경사역에 필요한 장비 구매와 D 형제의 합류를 위해.
3. 비닐하우스 와 육묘시설 추가 설치 과정을 위해
4. 하늘이 11 월 진료 일정을 위해.

중장기 제목

1.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2. 안경사역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3. 다블랏 가정과 농업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4. 한글 수업을 통해 아내가 섬기는 아이들과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5. 비영리단체 현지 지부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 제목

1. 아내 갑상선 암과 하늘이 전신 경화증 치료를 위해.
2. 지성과 인애의 대학생들과 진로를 위해.
3. 부모님들의 건강.
4. 매형 최겨레스ㄱ사의 건강을 위해서.